

일본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정 성 혜

目 次

- I. 서 론
- II. 일본 패션의 국제화
- III. 일본 패션 국제화에 기여한 주요 디자이너 고찰
- IV. 198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 론

1. 연구목적

2차대전 후 세계 패션의 흐름은 Paris를 중심으로 Cristian Dior, Pierre Cardin, Y.S.Laurent 등에 의해 발달되어온 유럽 정통 Houte Couture style의 High fashion과, 미국을 중심으로 mass production능력과 merchandising기술을 바탕으로 60, 70년대 Unisex, Young casual, Pop 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Calvin Klein, Ralph Lauren, Perry Ellis 등에 의해 그들만의 독특한 sportswear, casual문화가 발전되어왔다.

60, 70년대까지 지배해오던 이런 큰 두 줄기의 패션 흐름은 80년대 들어 이전 시대의 특징인 규격화, 동시화, 중앙집권화와 상반되는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¹⁾ 즉, 다종다양하며 마이콤 기술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의한 새로운 생산

양식, 개성의 존중과 다양화, 건축과 예술에서 나타난 Post-modernism, Neo-modernism등의 영향으로, 정교하고 형식 속에 짜여진 권위주의적 Houte Couture와 대중적이고 획일적인 unisex style의 American sportswear look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이미 하위문화권에서는 Mods, Hippy, Punk, Grunge등 사회 반항적인 패션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아래, 일본은 그들이 갖고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공이 문호개방되면서 새로운 동양권에 대한 관심을 이용, '60, '70년대부터 Hanae Mori, Kenzo등과 같이 Paris 무대에서 잘 조화되어 인정 받아온 designer name등에 힘입어 일본 문화와 일본패션을 80년대 사회, 문화, 예술 전반의 새로운 흐름인 제3의 물결과 접목시켜 Issey Miyake, Rei Kawakubo, Junko Kosino, Yohji Yamamoto등 신진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Paris무대에서 큰 돌풍과도 같은 새로운 Fashion의 혁명

을 일으키며 80년대 세계 패션의 관심을 일본으로 모아지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양의 문화, 패션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있던 서구패션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옷에 대한 서구인의 고정관념과 틀은 깨어지고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세계패션의 흐름은 새로운 장르를 열게 되었다.

본고는 100년이상 서구인들에 의해 주도되어온 Paris fashion이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새로운 양상을 띄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문화와 패션, 디자이너들의 역량과 이들이 세계정상에 서기까지의 과정, 배경을 연구하고, 80년대 이후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에 의해 변화되어온 세계패션의 새로운 흐름과 영향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1981~1989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유력한 High fashion잡지인 Paris Vogue지를 중심으로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광고 publicity등을 통해 내용을 고찰하고, 미국 F.I.T 도 사실에 소장된 designer biographic 자료와 W.W.D 기사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들 일본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패션, 독창적인 창작법등이 90년대에 들어와 동양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대거 등장하고 범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1990~1994년 까지의 'Fashion Show', 'Collection' 잡지등의 Paris, New York, London, Milano, Tokyo등의 주요 Fashion Show작품들에서 80년대 일본 패션풍에 영향받은 작품들을 모아 연구하였다.

그 외에, 국내의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집과 전문서적, 잡지, 신문등의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일본 패션과 디자이너 고찰 범위로는 현재까지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많은 일본 디자이너들이 있으나, 60·70년대에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패션과 문화를 서구의상에 적절히 접목시켜 일본 디자이너로써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게한 Hanae Mori와 Kenzo

를 중심으로 유럽진출의 발판을 갖게한 초기의 디자이너로 선정·고찰하였고, 80년대의 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획을 긋고, 패션의 혁명을 일으킨 디자이너로 Issey Miyake, Rei kawakubo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일본 패션과 디자이너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박명희의 '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²⁾와 李瓊姬의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세이 미야케 디자인을 중심으로-'³⁾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80년대가 Issey Miyake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시기로 그의 디자인과 작품성을 위주로 고찰되었으나, 본고는 80·90년대 Fashion의 흐름과 일본 디자이너들의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몇몇 연구에서 고찰된 Issey Miyake 개인 보다는 일본 패션의 전반적인 영향력과 국제화 과정을 90년대와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특히 90년대 패션의 흐름과 창작법, 비구조적 조형성등이 80년대 일본 디자이너 작품들의 많은 영향권에 있다고 볼 때 90년에 들어와 일본 디자이너들과 그들의 패션을 연구함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보며, 이신우, 이영희, 진태옥, 홍미화등 최근 1~2년사이 많은 한국 디자이너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동양권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 디자이너들의 세계무대 진출과정과 그들 디자인의 예술성과 작품성, 90년대까지의 패션의 흐름을 연구함은 또한 의의가 있다고보며, 한국디자이너가 세계무대에 서고, 국제적인 영향권을 지니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II. 일본 패션의 국제화

일본에 서양복이 소개된 것은 1883년이지만, 양장이 일반화 된 것은 제 2차 대전부터이고, 현대적인 패션이 자리잡은 것은 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불과 20여년동안의 노력은 Tokyo를 세계 제 5대 패션도시로 부상시키고 세계패션을 이끌어가는 많은 creator를 배출시키고 있다.

1953년 Christian Dior Fashion Show가 개최되면서 평면재단에 의존했던 일본에 서양의 입체재단 제작법이 도입되고,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면서 Paris designer들이 일본 백화점에 license 계약을 맺고 일본 디자이너들이 해외에 나가 공부하며 그곳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Hanae Mori Collection이 열리면서 일본에 고급 기성복 시대가 시작되었고, 왕성한 패션 수요에 급부응하면서 디자이너와 의류업체가 일본 외로 확장되어가는 시기가 시작되었다.⁴⁾

그 후 70년대 두번에 걸친 석유과동으로 일본의 의류시장은 양적 축소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스포츠의 대중화, 일본의 경제력 강화등으로 소비자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70년대 까지도 전반적으로 일본의 패션은 유럽이나 미국들의 잡지, sample등을 들여와 copy에 의존하고 영세적인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⁵⁾

80년대에 들어와 일본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양적·외적 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이 가속되어 copy에 주로 의존했던 일본패션은 Hanae Mori, Kenzo 등이 서구에서 일으킨 동양의 바람, 일본패션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바탕으로 Issey Miyake, Comme de Garçon의 Rei Kawakubo, Kansai Yamamoto, Junko Kosino등의 활약에 의해 세계 Fashion의 새로운 Vision과 패션의 예술성, 조형성등을 부각시켰고, 패션의 80년대 프론티어로 100여년간 이룩해 온 Paris패션사에 새로운 장르를 펼치며 서구패션을 침식해갔다.

이런 일본패션의 국제화 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국제적인 일본분과 일본정부의 후원이다.⁶⁾

- ① 1960년 JETRO(일본 무역 지능공사)의 디자이너 선발후 구미지역 연수와 귀국후 활용
- ② 통산성 산하에 섬유 공업구조 개선사업협회를 설치하고(1967) 연구개발 및 지원, 1979년에는 Apparel 산업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Apparel

산업의 인재육성사업 개시

- ③ JETRO 후원에 의한 1~4회의 JFF(Japan Fashion Fair)를 1981년 New York에서 3년간, 1984년에는 홍콩에서 개최하여 일본 패션과 수준을 세계에 소개하고, 구체적인 수출상담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store의 step, buyer, journalist, 섬유·직물업계의 생산자들과 인맥을 맺게되었고, 홍콩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개성 있는 社内 디자이너들에 의한 캐릭터 상품개발에 성공, 미국의 하청형식에서 탈피, 독자적인 대미 수출 기획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의 show나 리셉션에서 일본 붐을 고취시키고 일본 정부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서 이룩한 명성을 패션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도록 전반적인 일본 image 상승효과에 일본 정부가 주력하였다.

- ④ 1983년에는 통산성 공업기술이 총 1백 30억엔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WFF(World Fashion Fair)와 FCC(Fashion Community Center)등을 설치, 세계적인 패션교류와 패션 관련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진하였고, 1987년 일본 통산성 장관은 '금후 섬유산업 및 그 시책에 관한 방안'에 대한 섬유공업 심의회의 및 산업구조 심의의회에 자문을 의뢰, 1988년 '신섬유 비전'을 제시, 이를 통해 일본이 명실상부한 패션발신지가 되기위한 노력과 후원이 섬유, 의류산업의 선진화, 국제화에 큰 힘이 되었다. FCC의 구상을 통해 1989년에 섬유 리소스 센터를 설립, 수요의 고감도화·고품질화·패션화에 따른 패션산업의 상품기획기능, 정보발신기능, 창조력 강화와 섬유산업 활성화를 통해 패션문화가 지역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⁷⁾

둘째, 일본의 복식문화의 발달이다.

일본 복식문화 중 주목할 것은 중세의 헤이안 시대 궁중여성의 의례복식이었던 주니히도애의 가

사네이로때 색채배합법이다. 4계절에 나오는 꽃과 풀 등의 이름을 따서 의복 안밖의 색을 나타낸 것으로, 계절감과 색채가 융합해서 만들어진 일본의 독특한 문화로 일본을 '색의 예술'이라 칭하는 것도 이에 기인된다. 그 후, 막부시대의 고소데(小袖)는 근세 일본 미술의 정수를 이루는데 고소데의 무늬표현은 염색, 직조, 자수등의 방법으로 사생풍, 도안풍 등 다양한 무늬를 각종의 문화, 예술에 표현했는데 이는 복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직물기술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⁸⁾

15C 후반부터 포르투갈의 배가 교류해 서양문화가 처음으로 유입되었고, 에도시대 후반기에는 江戸풍이 나타난 單彩화와 個個의 色相의 深化를 달성한 시민풍의 영향을 받았다.⁹⁾ 이런 일본 특유의 자연의 美를 이해하는 배색문화는 후에 하나에 모리등에 의해 일본 패션의 독특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본 복식의 착장법은 layering으로 겨울의 방한을 위해 기모노를 여러겹 입는 것이 필요조건이었는데 layering type 위에 오비, 풍성한 기모노·소매등은 다른 복식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80년대 많은 일본 디자이너에게 idea를 제공한 독특한 착장법이다. 이런 일본의 평면적 배색문화와 착장법은 착용자의 선택에 따라 인체 위에서 다양하게 재창조 될 수 있는 비구조성을 지니고 있어 착용전에 이미 형이 고정되어있는 서구 복식과는 구별되어져 일본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원천을 마련해 주었다고 보겠다.

셋째, 일본 패션교육의 발달과 대중 마스크의 발달이다.

도쿄의 시나가와에는 총 건평 7백 40m² 4층 건물의 1957년에 설립된 스키노학원 의상박물관이 있어 서양옷과 일본옷이 2:1의 비율로 500여점이 소장되어 자연스러운 사회적 의상교육 여건이 마련되어졌고, 1970년에 이르러는 전국에 약 3천 8백개교의 양재학교가 있어 학생수는 백만에 이르렀다.¹⁰⁾ 그러나, 1976년에는 전문학원령이 시행,

학교수가 감소하는 대신 전문화가 가속되어 현재 문화여자대학 소속의 문화복장학원은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박사 course까지 있어 동남 아시아로부터 유학생만도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 파리의 에스모드, 국립 장식 미술학교, 미국의 F.I.T와 Parsons School처럼 패션이 선진화·국제화 되기 위해서 그를 뒷받침하는 전문적 교육기반 강화가 필수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래 전부터 만화영화를 무기로 세계 각국에 수출하였는데 이 결과, 많은 방송들이 제작비가 안드는 일본만화를 많이 상영하여 유럽인의 유아기 잠재의식 속에 일본 image가 심어져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일본을 손꼽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만화수출이 일본의 문화수출과 연결되어 경제발전과 패션의 세계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겠다.¹¹⁾

또한, 1970년 초에 AnAn, NonNo 등이 창간된 이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Collections, Fashion Show 등 세계적인 Fashion 전문잡지들을 발행, 세계의 가장 주요한 패션 정보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로는 일본인 특유의 인성과 노력으로 일본인의 근면성, 공동체 의식, 치밀한 성격, 천절한 상도덕등을 바탕으로 한 일본 디자이너들과 기업,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이다. 특히, 패션업체는 기업의 장래를 위해 인재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예컨대, 레나운은 한해에 530명이나 해외연수를 보낼 정도였다.¹²⁾

위와같은 일본의 정부, 기업, 개인들간의 기민한 협조와 노력, 국가가 선진화 되어갈수록 가장 주요한 산업으로 대두되는 패션산업에 대한 빠른 인식,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애정은 일본을 세계적인 패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 있다.

Ⅲ. 일본 패션 국제화에 기여한 주요 디자이너 고찰

1. 하나에 모리(Hanae Mori)

1926년 Mukaichi라는 작은 도시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동경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 졸업 후, 직물회사를 경영하는 Ken Mori와 결혼하였다. 그 후 Dress Maker 학원에서 의상공부를 한 후 1955년 Shinjuku에 작은 boutique를 열었다. 영화와 무대의상을 담당하면서 10여년간 600여점이 넘는 영화의상을 제작하여 그녀의 옷을 입은 많은 영화배우를 통해 그녀의 명성은 커지기 시작했다.¹³⁾

1962년 Paris를 여행하면서 Co Co Chanel을 만나 그녀의 밑에서 잠시 일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는 후에 Paris를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 New York 여행을 하면서, 이들의 merchandising 기술과 기성복의 대량생산 능력에 감동받아 1963년부터는 영화의상 제작을 중단하고, 기성복 회사를 창설하였고, 65년에는 New York에서 첫 Fashion Show를 가졌다. 이후, Bergdorf-Goodman, Neiman Marcus 등의 미국 고급 백화점에서 일본은 '1달러 Blouse Maker'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evening gown한벌이 \$800까지 팔리면서 그녀의 인지도는 높아갔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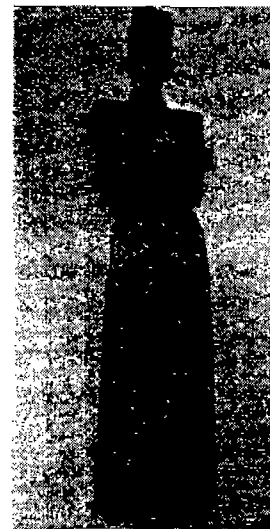
큰 아들인 Akira가 New York E 79th st.의 show room을 맡고 일본의 유력한 섬유기업인인 남편이 뒤를 밀어주면서, 그녀의 기업은 런던, 스위스, 독일, 벨기에에 이어 1977년에는 Paris Maison을 열고,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Fashion을 세계에 소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63년에는 JAL 항공사 uniform, '72년에는 Sapro 동계 올림픽의 ski복 등을 제작하며 Mickiko 황태자비, Monaco의 Grace 왕비, Philippine의 Imelda 여사 등, 국내외 귀빈 의상을 맡으면서, 일본 상류층을 대변하는 가장 유력한 디자이너로 부상하였

다. '78년에는 동경 중심가에 6층 건물을 지어 레스토랑, 악세사리, 관제리, 침구류부터 남성, 여성 기성복, Couture evening, Wedding firm까지 20여 종의 품목들을 총별로 구성하였고, 맨 윗층에는 gallery가 있어 각종 예술, 패션, 의상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에는 100여명의 staff진과 20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의식주 전반에 걸친 종합 Fashion영역을 세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¹⁵⁾

그녀는 작품 속에서 일본의 전통 색상과 자연의 혼을 서구적인 美에 조화시켜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특히, 꽃과 나비는 그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림 1>, <그림 2>. 그녀의 수필 「내일의 디자인, 유리잔의 나비」에서 '나비가 갖는 화려함이란 부서지기 쉬운 베네치아 유리잔의 투명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유리잔도, 나비도, 패션도 美人薄命이란 느낌이 든다. 변하기 쉽고, 덧 없는 것을 잡고 싶어하는 욕구가 30여년 나를 사로잡았는지도 모른다' 라고 표현하는 그녀는 Madam Butterfly라고 불리울 정도로 나비는 그녀의 상징물이기도 하다.¹⁶⁾

'80년 New York Time지에는 'Japan's First Woman Tycoon'이란 title로 일본 전후의 어려움



(그림 1) Hanae Mori, '85 추동 컬렉션 중에서



(그림 2) Hanae Mori, '88 추동 콜렉션 중에서

과 빈곤한 환경,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전통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 일본 여성 패션의 동의어(synonym)로 표현하면서, 카메라의 Nikon, 전자제품의 Sony, 자동차의 Toyota와 비교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1973년에는 미국에서 Neiman Marcus상을 받았고, 1978년 Paris에서는 Madaille d'Argent와 Croix de Chevalier des Arts et Lettres등이 수여된 바 있다. 현재, 패션 진흥 재단을 세우고, 일본 패션의 기점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93년에는 Haute Couture 의상전을 Paris로부터 유치하는데 sponsor가 되는등 패션도시 Tokyo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혁신적인 예술가라기보다는 일본 패션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이며, 경제적 기업능력이 탁월한 business woman으로 여성美의 완벽함을 추구하였고, 일본 여성 전문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20~30대 여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여성상으로 대표되는 Female Napoleon으로 여겨지고 있다.¹⁷⁾

2. 다케다 겐조 (Takada Kenzo)

1940년 교토 출신으로 여관을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예술학교에서 상을 받고 졸업하면서, 잡지 회사에서 패션에 관계된 일을 시작, 이를 계기로 문화복장학원에서 의상을 공부하였고, 1964년에는 Paris에 도착, 그 곳 몇몇 매장에서 free-lancer로 일하면서 염색기술을 배워 서구 감각을 익힌 후, 1970년 앤티크한 의상을 취급하던 가게를 인수하여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디자인부터 패턴, 봉제까지 완성하여 70여점의 의상을 갖고 작은 발표회를 가졌다.¹⁸⁾ 자본이 부족하여 주로 일본 목욕가운으로 사용되는 유카타의 재료인 cotton과 Paris 번두리에서 구입한 재고 원단들이었다. 재단은 아주 단순한 일본 기모노풍의 평면 재단에 의존하고, 색의 감각을 modern touch로 신선함과 경쾌함을 주었다. salon가의 모델보다는 Rock music을 배경으로 casual한 마네킨 의상전시와 사진광고등이었으나, 이것은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salon가의 전유물인 Paris의상을 거리로 이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⁹⁾

귀족적이고 우아한 Haute couture 풍의 Paris Fashion에 Oriental, Folklore, Ethnic한 그동안 패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제 3의 문화권을 의상에 다양하게 match 시키고, Paris 의상을 수용하여 casual화 시키는 개척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75, '76년에는 China 풍의 Mao a la Mode look을 발표했고, '78년에는 인도 수상 네루를 연상시키는 인도풍 터번의 Nehru look과 외눈 안경을 쓰고 작은 가방을 맨 해적 핑크 look을 발표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동과 사하라 지방을 연상시키는 Harem pants와 match된 중동풍의 의상등을 연속적으로 선보였다 (그림 3), (그림 4).

그는, 프랑스 Couture가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현대적인 의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고 처음부터 Paris의 길거리에서 보이는 다소 반항적인 젊은이의 옷차림과 여행에서 쉽게 보이는 지역 특징



(그림 3) 「KENZO」광고, '82 'French Vogue'

를 선보였고 <그림 5>, '87년에는 러시아인 코사크 look , '90년대 들어서는 남태평양 일대의 밝은 자연과 꽃 print <그림 6>를 중심으로한 Oriental look 등 끊임없이 지구촌의 이색적인 image를 세계 패션에 소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있다.

80년대 이후 Paris Collection에 호화찬란한 dress가 서서히 물러가고 거리의 패션이 등장하



(그림 4) 사하라풍의 「KENZO」광고, '83 'French Vogue'



(그림 5) Kenzo, '84~'85 A/W Prêt à Porter Collection

적인 민속복차림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일본 디자이너들의 기본방향은 이런 켄조의 의식 속에서 싹텄다.²⁰⁾

1971년, 미국판 보그지는 Kenzo의 부띠끄 Jungle Jap을 파리 부띠끄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진보라고 평하였다. Kenzo의 특징은 cotton이 가진 친밀감과 착용의 편이성등을 강조한 “cotton의 시인”으로 세계의 Yonug Mode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디자이너로 나이를 먹지않는 만년 청년 star로 통하고 있다.²¹⁾ '85년에도 Mexican, African등의 Batik Oriental 풍의 Carrival Mode



(그림 6) Kenzo, '91 S/S 'Collection', p.139

여, 고객이 상류사회에서 젊은 대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Jean Paul Gaultier나 Vivienne Westwood같은 젊음과 소의 된 계층의 하위문화를 대변하는 패션이 80년대 이후 Paris Fashion의 주류를 이루는데 교량 역할을 하였으며, 서구에 Orientalism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다.

3. 이세이 미야케 (Issey Miy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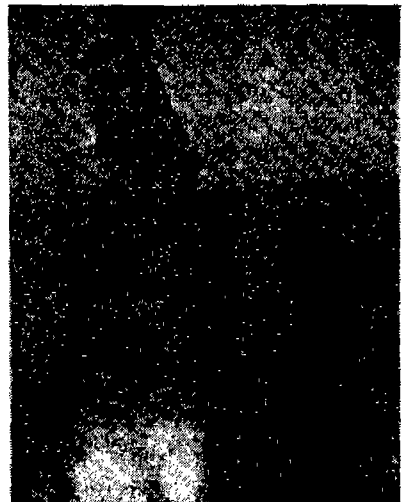
미국의 전위예술 비평가인 Leonard Koren은 '전위적인 일본디자이너 중 이세이 미야케는 가장 전위적이고 일본과 서구식의 결합이 낳은 국제적인 디자이너'라고 하였고, 파리 장식미술관 관장인 이븐느 델랑드르 여사도 '우리 시대의 최고의 크리에이터'라고 평하였다. 이탈리아의 조지오 아르마니 또한 "그는 천재다. 이미지에서나 접근 방식에서 그는 패션을 초월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의 옷에서는 부드러운 운율이 연상되며, 믿을 수 없을만큼 직물선택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그는 디자이너라고 한정하기에 아까울 정도다. 예술가라는 호칭이 보다 어울린다고 평한 음악가인 마일즈 데이비스는 그의 광적인 팬이기도 하다. 미야케의 창조력은 Tokyo를 세계 패션 중심지로 부상시켰고, 레이 카와꾸보, 요지 야마모토등을 세계적 인물로 부각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²¹⁾

100여년간의 서구 Fashion사에 커다란 획을 긋고, 일본 디자이너를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게 한 인물로 여겨지는 Issey Miyake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박명희(1990)²²⁾와李垠姮(1991)³⁾ 등의 논문에서 자세히 연구되어졌고, 80년대 '멋' 잡지 등에서도 많은 기사가 실려있다. 그의 약력을 간단히 요약하면, 1938년 히로시마 출생으로 1964년 Tama Art University를 졸업하고, 1965년 Paris로 건너가 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에서 공부한 뒤, 1966년~68년까지 Guy Laroche와 Givenchy에서 assistant로 일한 후, '69년 New York에 건너

가 Geoffrey Beene에서 일하였고, 1970년 동경에 Miyake Design Studio를 열었다.²³⁾ 그의 background에서 의상 디자이너의 세계를 넘는 예술가적 기질은 이미 학부 시절에 연마되었고, 70년대까지 서구 패션의 양대 산맥인 Paris와 New York의 유명 designer 밑에서 실무교육까지 겸비하면서 일본 전통미를 바탕으로 예술과 서구 문화를 혼합한 범 세계적 모드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생성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옷감과 육체의 교류로부터 퍼지는 imagination한 세계, 옷의 기본 구성을 완전히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의 출발, 착장자 자신이 연출하는 자유로운 의상은 옷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다.

소재 선택에서도 플라스틱으로 흉대를 만들고 그 틈을 엮어 칼라를 만들며, 또한 기름종이로 망토를 만들기도 하며, 고무, 철사, 화지 등이 의상으로 연출되었다 <그림 7>, <그림 8>. '82년 뉴욕 항공모함 show, 1983·84년 일본 동경 라휘레 뮤지엄에서의 Body Works등의 패션 show는 인간 본래의 야성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영상 매체와 예술과 패션이 하나로 융합한 스펙타클한 실험적 시도였다. 이런 그의 독창적 감각과 세로움에 대한 도전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영감과 흥분을 가져다 주고 있다.²⁴⁾



(그림 7) Issey Miyake, '83 작품 중에서



(그림 8) Miyake, '91 S/S 'Collection', p.101

그는 「East Meets West」를 1978년에 발간, 패션계의 진입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서구 문명은 분명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의 옷이 하나의 package로서 몸에 딱맞추고 여성을 구속하나 일본 옷은 평면의 옷감을 자연스럽게 걸치고 남은 부분은 그것의 조화로운 멋을 창출하도록 내버려 둔다. 즉, 그의 디자인은 이런 일본 전통의상의 개념에서 출발, 한장의 천으



(그림 9) Miyake, 'FASHION 85', p.52

로부터 여백과 자연스런 volume, 착용자의 개성을 중시하고, 입는사람에게 여러가지 idea를 던져주고 옷을 갖가지로 변형시켜 연출 할 수 있게한다(그림 9).²⁵⁾

이것은 카운터 문화, 반체제, decontract 등의 70년대의 요구와 현대 예술의 추상성과 잘 맞아 흔히 말하는 Japanese look을 탄생시켜 자유로운 착장법과 비구조적 style로 패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80년대의 New Wave Fashion, Post modernism, Neo modernism look의 원천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런 새로운 옷의 개념이 일반과 대중에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해, 80년대 중반 이후는 Fashion에서 복고풍, 자연주의가 유행, 1920, 30년대 Chanel 풍의 classic look이 대중에게 어필되었고, 구조적인 바디 컨서스 look 즉, Sloane Ranger style (런던 street를 지나다니는 다이애나 look과 같은 상류계급 style)나 프랑스식 BCBG(Bon Chic Bon Gout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elite classic style) 등이 지배하기도 하였다.²⁶⁾

그러나, Issey Miyake 등 일본 디자이너들의 Paris 무대에서의 계속적인 활동은 일본인들이 창출해 낸 New Wave Fashion에 힘입어 Thierry Mugler, Claude Montana, Jean Paul Gaultier, Vivienne Westwood와 같은 Avant garde한 전위파 디자이너들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90년대 들어 Maurizio Galante, Dolce Gabbana, John Gallano, Helmut Lang과 벨기에 태생의 안트와트 6인 등 신세대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의상의 방향과 형태의 모체가 되어 80년대 초에 이룩한 일본 디자이너들의 의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10년후 거리의 의상으로 대중화되고, 신세대와 신진 디자이너들에 많은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즉, 로마 군인들을 연상케하는 검정구두, 의상에서 결정색을 선호하고, 굵고 매끈한 천보다는 이세이 미야케 이후 자연스런 구김살이간 신소재, 마, 비형식적으로 layered된 처렁치렁한 의상, 미야케풍의 창백한 색조의 화장법등이 유행되면서



(그림 10) Miyake, '91 'Book Moda', p.251

일본이 패션을 통해 세계를 또 한번 휩쓸게 하고 있다.²⁷⁾

4. 레이 가바쿠보(Rei Kawakubo)

1980년대 이름을 떨친 일본 디자이너 중 Kawakubo는 가장 순수하고 고집세며 전위성이 강한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시대와 대치하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고, 세계의 패션이 보수화와 클래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경종을 울리며 반모드를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그녀는 기존의 서구패션에서 벗어나 모든 것은 실과 옷감을 갖고 원점(zero)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인간을 의복 속에서 자유롭게 하고 기존의 seam과 dart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cutting으로 건축가나 인테리어, 산업 디자이너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는 Fashion에서의 순수파(purism)라고 불리고 있다.²⁸⁾

Kawakubo는 다른 디자이너와는 달리 정식으로 design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942년 도쿄에서 Keio 대학교수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Keio 대

학에서 미학을 전공한 후 섬유회사의 광고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패션 분야에 많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당시 유명 journalist이고 editor인 Atsuko Kazasu를 만나 free-lance stylist로 일할 것을 증용받는다. 이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옷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스스로 1973년 자신의 회사를 열게 되고 Comme des Garçons (like the boys)라는 brand명을 붙여 무채색 tone을 바탕으로 남성복의 영향을 받은 기존의 여성복 개념을 넘은 새로운 Japanese look을 발표하게 된다.²⁹⁾

패션학자인 Harold Koda는 그녀가 분명한 Modernist designer이긴 하나 그녀의 美의 철학은 부와 사치보다는 빈곤과 단순함을 중시하는 중세 카톨릭 正典(Canon)에 영향받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패션 철학인 불규칙(irregularity), 불완전(imperfection), 비대칭(asymmetry) 등은 전통적 일본 미학에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³⁰⁾

그녀는 검은색 옷감을 즐기며 장식이 없다. 이는 풍부와 美의 서구적 개념에 대항하는 이상과 파괴주의자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녀는 불완전(imperfection)이 또하나의 美의 대상이며 이것은 자연의 허무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을 자극한다고 하며 기계는 옷감을 보다 uniform화, 정형화시키고 있어 난 무언가 빠진 것, 완전하지 못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손뜨개가 최선이나 방편적으로 기계의 나사를 이곳저곳 느슨하게 풀어 불완전한 멋을 창조하길 언급한다³¹⁾ <그림 11>. 이런 그녀의 구멍나고 찢긴 스웨터는 중요한 20C Style로 Victoria & Albert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1987 New York의 F.I.T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Three Women'이란 title의 전시회가 열렸다. 현대 패션사에 의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가장 이지적이고 영향력을 지닌 디자이너 3명을 발탁하여 의상작품 전시를 한 곳에 Madeleine Vionnet, Claire McCardell과 함께 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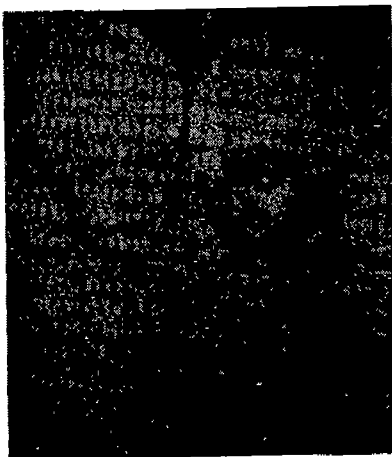
(그림 11) Kawakubo, '83 추동 작품

의 디자이너로 Rei Kawakubo가 선정되었었다.³²⁾ 1947년 Christian Dior의 New look 만큼 충격적인 그녀의 의상은 무질서와 파괴로 미완성의 美를 완성시키는 패션계의 반란가로 모드의 근본을 뒤 흔든 강력한 style을 창조해 낸 것이다.

흑백(mono chrome)의 여왕이라 불리울 만큼 무채색을 즐겨왔던 그녀는 세계적인 모드가 불황의 영향으로 중세의 금욕주의적 style의 어두운 색조로 갈때, 1989년 sugar-pink, apple-green,

sky-blue chiffon, organdy blouse와 바지<그림 12>를 선보여 당대의 디자인과 맞섰고³³⁾, '90, '91년 Mini와 60년대 Young fashion이 주류를 이룰 때 Greece의 자연스런 drapery 美를 느끼게 하는 휘어감치는 chiffon long dress를 선보이고³⁴⁾ <그림 13>, '92, '93년 패션이 다시 자연과 과거의 회귀로 돌아설때는 미완성의 헵라인, upside-down, inside-out의 deconstructism(탈구성주의)를 보여³⁵⁾ <그림 14>, 끊임없이 시대와 대치하면서 Fashion을 앞서 lead해가고 있다. 인습과 전통, 보편성등으로 패션이 질식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름답다는 의미가 반드시 대중이나 관습적인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인습과 전통적인 것을 파괴함으로써 美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패션계의 혁신가이자 영원한 creato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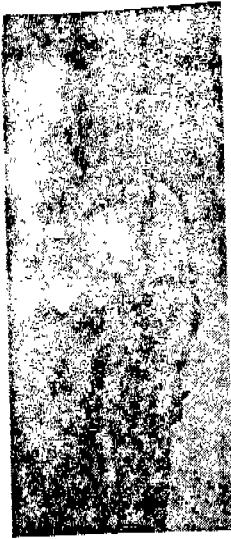
이런 예술적 감각 못지 않게 그녀는 상업에도 능해 다른 유명 디자이너와는 달리 45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사장이자 주임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있다. Paris나 New York Soho가에 있는 그녀의 boutique의 interior 또한 그녀의 작품으로 석파이프가 그대로 노출된 천정, 한번 덧입혀야 할 것 같은 붓의 숨결이 그대로 느끼



(그림 12) Kawakubo, '89 S/S 작품
Fashion of a decade : The 1980S, p.15



(그림 13) Kawakubo, '91 S/S
Paris 'Collection', p.73



(그림 14) Kawakubo, '92 S/S
Paris 'Collection', p.97

는 회칠벽, 공포감마저 느낄 것 같은 장식없는 공간감의 극대화, 마네킨이 아닌 철사장식의 옷걸이에 허수아비처럼 걸려있는 무채색의 그녀의 의상들은 80년대 획기적인 boutique interior style로 그녀의 예술성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충격을 불러 일으켜왔다.

IV. 198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1기 : 1981~83년

Paris의 High Fashion계는 1948년 Christian Dior의 New look이래 귀족적이고 권위적인 정교한 Haute Couture 의상정신이 계승되어왔고, 1981년의 영국의 Charles왕자와 Diana의 결혼 이후, Diana 공주의 품위를 갖춘 귀족적 의상은 한 때 세계 여성의 우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80년대에 들어 패션의 주요세력인 Baby boom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진출, 남성들과 어깨를 겨루어 일을 하면서, 의상은 남성들과 같은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려는 어깨 pad가 강하고 Black & White의 남성적 Tailoring look을 표현하는 분위기의 의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문화가에서는 80년대 들어 새로운 개성화, 다양화가 요구되면서 예술 전반에 걸쳐 Postmodernism 문화가 만연하고, 형식이 붕괴되어 모더니즘의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순수문화에 대항하며 대중 문화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신 표현주의적 경향이 모더니즘이 고수해왔던 매체와 장르의 순수성을 파괴하면서 이른바, 후기 자본주의, 후기 산업사회로 불리우는 오늘날의 정신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함으로써 과감한 표현 방법만큼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갔었다.³⁶⁾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1983년에는 뉴욕의 증예 미술관에서 Art-to-Wear : New hand made clothing 전시가 열려 60년대末부터 Pop Art에서 영향받은 예술의상 운동은 80년대에 전통적인 패션을 무시하는 고객과 예술 수집가들에 의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Zandra Rhodes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하위계급의 Hippy, Punk 등의 Street fashion과 예술 전반적인 영향들이 Fashion가에 선보여지기도 하였으나 패션의 본고장인 Paris Prêt à Porter 무대에 기존의 Haute Couture 정신에 배제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패션에 선보인 것은 일본 디자이너들이었다. '81, '82년 Paris Vogue지에는 Kenzo의 동양풍의 Street casual fashion들이 연속적으로 실린 이후, '82년 Vogue지에 10page 이상에 걸쳐 일본의 문화, 예술, 의상에 대한 기사가 실려, Japanese fashion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83년 Miyake의 Body Work 전에 의해 일본 패션의 충격은 경제적인 힘과 그들 특유의 공동체 의식의 group활동으로 Paris fashion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³⁷⁾

2기 : 1984~86년

'84년 이래 안드로 지너스(Androgynous)의 성 혁명은 런던을 중심으로 Boy Georgy라는 여장 남자의 Rock star들의 인기 절정과 미국을 중심으로 Micle Jackson과 Madonna fashion style들이

청소년 층에게 크게 확산되면서 가죽이나 P.V.C 소재의 번쩍거리는 금속성 악세사리가 유행되고, 색색으로 물들이고 unbalance된 hair-style의 Punk fashion이³⁸⁾, Paris에서는 Rei Kawakubo가 무형태, 무공식, 무색상의 정수를 의상에 표현하여 Beggarman look(찢기고, 상처난 무형식 style) <그림 15>을 확산시키면서, Junko Koshino, Kansai Yamamoto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의 대거 활약은 New Wave Fashion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성의 구별이 없고 계층의 상하구분이 없어져 권위주의는 몰락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Paris에서는 전통적 Haute Couture 정신과 이런 New Wave Fashion을 절충한 새로운 Couture Designer로 Claude Montana, Karl Lagerfeld 등이 패션의 핵심세력인 career women을 위한 새로운 감각의 Manish look의 Tailoring style들을 발표하면서 일본 디자이너들의 극단적인 패션은 '85년을 고비로 주춤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성숙기와 안정기에 접어든 career women 들은 여성미와 복고적 의상에 향수를 느끼며 Karl Lagerfeld에 의해 선보인 80년대 Chanel style과 Ungaro의 로맨틱한 print와 drapery, Christian Lacroix 등의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자수 등의 복고



(그림 15) Rei Kawakubo, '84
Paris Collection 중에서

적 성향이 다시 Paris를 lead했고, 미국에서는 Anne Klein사로부터 독립한 Donna Karan의 성숙된 career women의 로맨틱한 정장류가 86년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Japanese 열풍은 가라앉고, 극단적인 New Wave Fashion의 반발작용처럼 서구 전체는 복고적 image가 강화되었다.

3기 : 1987~89년

'87년에는 여성의 육체를 극단적으로 강조시키는 Body conscious 시대를 맞아 女性美를 중시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함과 유럽 문화의 원천인 보수적인 이태리 Fashion이 부흥하여 Giorgio Armani, Gianfranco Ferré, Gianni Versace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또한, '87년 말 「마지막 황제」의 영화이후, 동양의 신비와 전통미가 새롭게 부각되어 중국을 이어 이태리까지를 잇는 Silk Road 상의 주변국들의 전통미와 고전적 감각이 패션계에 만연하였고, 러시아의 개방 이후 공산권 문화와 의상이 패션에 유입, 중세의 기독교적 무채색의 drapery, gather가 강한 근엄하고 권위적인 의상이 유행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88년을 지나면서 성숙하고 우아한 멋은 연련층이 낮아져 mini가 선보였으며, 보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country풍과 sports가 생활화되면서 Ralph Lauren의 Mark봄에 편승된 Sporty look이 확산되었고, 일반 여성복에서의 print도 보다 모던해져 Art Nouveau에서 Art Deco풍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80년대 初 일본 패션의 영향은 신세대 젊은 층과 Avant garde fashion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와 소비자층에게 넓게 확산되어 가면서 Issey Miyake풍의 화장법, 비형식적인 옷의 구성, 다양한 texture, 신소재 등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몇년간의 클래식한 복고풍의 유행은 퇴색하기 시작했다.

4기 : 1990~92년

이태리 디자이너의 상승은 Dolce & Gabbana,

Romeo Gigli와 같은 신진 디자이너의 등장으로 인해 극단적인 여성美의 강조에서 자연주의의 표방으로 여성의 의상은 다시 인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80년대 초 일본 디자이너들이 심어놓았던 탈 형식주의를 기반으로, 자연스런 drapery와 비구조성을 위주로 한 의상이 선보여졌다<그림 16> <그림 17>. Paris fashion 계도 Jean Paul Gaultier, Thierry Mugler, Yohji Yamamoto,

Martine Stibon의 Avant garde한 의상이<그림 18> <그림 19> 전개되고, 영국을 중심으로 Vivienne Westwood, Michiko Koshino, Joe Castely-Hayford 등의 젊은 청소년 층의 Street fashion이 강화되었다<그림 20>. 이렇게, 세계 전반적인 패션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60년대의 mini가 절정을 이루고<그림 21>, 다양한 바지 패션이 선보이면서 Baby boom 세대가 낳은 신 포-



(그림 16) Dolce & Gabbana, '90 S/S
'Book Moda', p.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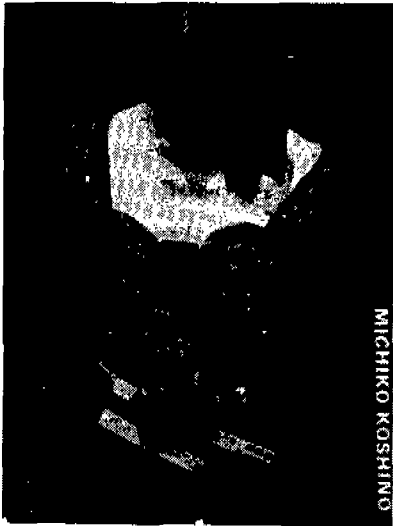
(그림 18) Thierry Mugler, '92 S/S
'Collections', p.45



(그림 17) Romeo Gigli, '91 A/W
'Book Moda', p.211



(그림 19) Yohji Yamamoto, '91~'92 A/W
'Collections', p.26



(그림 20) Michiko Koshino, '91 S/S
'Collections', p.305



(그림 22) Fendi, '91~'92 A/W
'Fashion Show', p.203



(그림 21) John Gallano, '92 S/S
'Collections', p.117



(그림 23) ↓ Paul Gaultier, '91 S/S
'Collections',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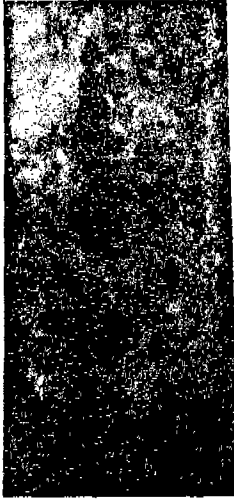
세대들이 패션의 주류를 이루었고, 60년대의 Pop 문화와, Couture designer들까지도 Jean fashion을 선보이면서(그림 22), 70년대의 Hippy(그림 23)와 Jean 문화가 재현되고, 8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이 심어 놓았던 Postmodernism의 New Wave fashion이 대중화되어 패션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주요 패션 정보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Tokoy 컬렉션을 통해 Yoshiaki Hishinuma, Nicole, Tokuko 1^{er} Vol, Yoshiyuki Konishi 등 많은 신진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주변 동남아시아, 유럽의 디자이너들을 영입시키면서 패션 도시로서의 Tokoy 위치를 강화시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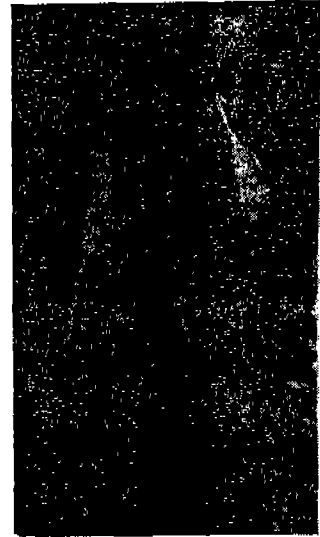
5기 : 1993~94년

스커트 기장은 다시 길어지고 slit과 비치는 (see-through) 의상들로 Eroticism의 강조, 환경 오염과 자연주의에 입각한 밝고 바랜듯한 색과 의상들에 8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개념인 비구조성, layering이 대중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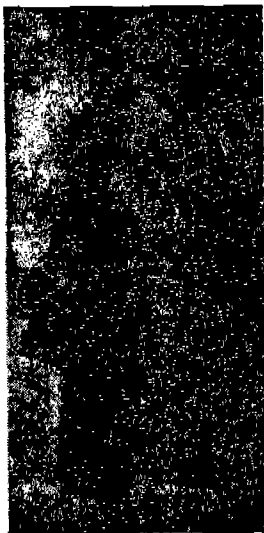
<그림 24>. 또한, 70년대末 Kenzo 정신의 탈 서구주의 즉, 지구촌 각 지역의 민속적이고 다양한 멋이 자연스럽게 가미된 casual 의상들이 90년대를 지배하고 있어 Jean Paul Gaultier와 같은 전위파 디자이너도 '94~'95 Collection에서의 Mongorian의 원시적 동양감각이 스민 민속의상을 선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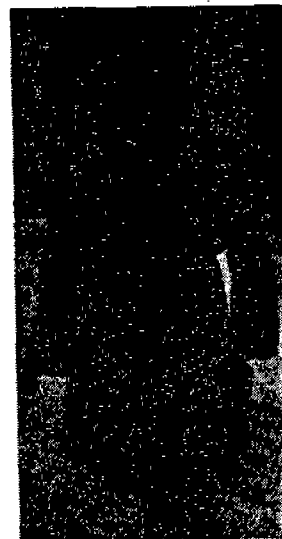
(그림 24) Rei Kawakubo, '94 Collection중에서



(그림 26) J. Paul Gaultier, '94~'95 A/W 'Fashion show' 표지



(그림 25) Kenzo '94~'95 A/W 'Fashion show', p.154



(그림 27) 홍미화, '94~'95 A/W 'Fashion show', p.155

있다(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이제 패션은 더이상 Paris Houtue Couture desinger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동서양의 소외되었던 각 지역의 많은 신진 디자이너와 함께 지구촌 각 지역의 다양한 맛을 창출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화의 노력 20여년 동안에 100여년간 이룩한 서구 패션의 틀을 깨고 그들의 패션 의식과 style 을 세계화 시켰고, 일본과 Tokoy 의 위상은 세계 패션 속에 확고히 서게 되었다.

V. 결 론

80년대로부터 지금까지의 패션은 3~4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보이면서 반승과 회귀를 반복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패션의 큰 흐름은 다원화, 개방화, 세계화, 개성화, 전통과 자연으로의 회귀, 비합리성, 비구조성의 추구라는 큰 맥을 같이하고 있고, 100여년 전통의 보수적이며 귀족적이고 권위주의적인 Paris의 패션계를 자극하여 위와같은 새로운 흐름의 줄기를 터준 장본인은 바로 Kenzo, Issey Miyake, Rei Kawakubo 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의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기('81~'83)의 Japanese풍의 Paris 패션가의 대두는 제2기의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위권의 Street Fashion이 대중에게 확산되고, Rei Kawakubo, Vivienne Westwood, Jean Paul Gaultier 같은 신진 디자이너를 창출시켜 세계가 보수화로 회귀할 때도 끊임없이 권위적인 Avant garde한 의상들을 선보이면서 패션계를 자극시켜 왔다. 2기의 New Wave Fashion의 확산에 대한 반발은 3기('87~'89)의 전통으로의 회귀, 동양과 중세, 고대의 신비에 심취하고 女性美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3기의 반발은 다시 4기('90~'92)의 '60, '70년대의 Pop, Rock 문화가 재개되게하고 신 X-세대를 위주로한 Avant garde fashion이 전세계에 확산되어 Grunge, Punk, Hippy, 집시풍, 일본풍이 대중과 호흡하면서, 80년대 초 일본 디

자이너들의 노력은 10년 후 대중화되어 정착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 패션은 보다 개성화, 다양화되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교차하며 신소재, Computer, 전자과학에서 영향받은 미래지향적인 면과 자연과 전통, 민속적이고 원시적인 classic, ecology 지향적인 면이 동시에 교차되고 있어, 패션은 각자가 선택하고 스스로 창출해내면서 100여년 지속해온 Paris의 Houtue Couture 벽은 허물어져가고 있다.

이런 80년대 이후의 패션의 변화와 특징들은 80년대 초에 보여주었던, Japanese desinger들의 의상에 대한 철학과 예술, 정신들이 뿌리가 되어져, 서구패션 100년사에 커다란 획을 긋고 패션을 예술, 대중과 신세대, 동양과 서양등과 연결시키는 큰 촉매 역할을 해왔다고 보겠다.

결국, 70년대까지 100여년간 구축되어온 서구 패션 속에 이런 Japanese풍이 확고히 서서 90년대에는 세계의 전반적인 패션 흐름을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은 일본 디자이너들 개개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지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인지도, 예술과 전통을 아끼는 국민의식, 공동체 의식 속에서 보여주는 협동심, 근면성등 일본이 지닌 전통, 문화, 경제, 사회, 정치, 교육의 전반적인 합일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본인이 터놓은 Oriental boom과 패션도시로써 Tokyo의 부상은 (이태리가 패션도시 Paris와 가까운 입지 조건을 이용 빠르게 패션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과 한국디자이너들에게는 호기(好期)로써 국제무대 진출이 보다 용이해졌으나 패션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일본이 보여줬던 각계각층의 공동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93년도 인하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 1) Toffler, A., 유재천(譯). 서울 : 학원사, p. 39~41, (1980)
- 2) 박명희, 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28권 1호, (1990)
- 3) 李垠姬,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이세이 미야케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 4) 조규화, 「선진국의 패션 및 패션산업」,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p.148, (1985)
- 5) 노부유키 오타, '디자인과 생산, 유통의 삼박자', 월간 멋, p.228, (1990. 2)
- 6) 조규화, "일본 패션 40년의 현주소 : 서구패션 도입 1백년만에 세계정상", 월간 멋, p.148~156, (1985. 9)
- 7) 조규화, "일본 패션산업의 성공 비밀", 월간 멋, p.227, (1990. 2)
- 8) 李垠姬,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p.23, (1991)
- 9)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p.23, (1987)
- 10) 김 상, '기모노 소매 세계를 휩쓸고 있다', 월간 멋, p.245, (1984. 2)
- 11) 임덕용, 유럽패션계에 동양 바람이 불고 있다, 월간 멋, p.213, (1988. 3)
- 12) 조규화, 월간 멋, p.223, (1990. 2)
- 13) Stegeneyer, Anne, Who's Who in Fashion, N.Y : FairChild Publication, p.143, (1988)
- 14) W.W.D (Women's Wear Daily), N.Y, p.12, (June 10, 1965)
- 15) 조규화,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p.283, (1985)
- 16) 조규화, 「선진국의 패션 및 패션산업」, p.283, (1985)
- 17) Steel, Valerie, Women of Fashion, Rizzoli New York, p.189, (1990)
- 18) 허 준, 루브르의 벽을 넘는 일본 디자이너들 (I), 서울 : 패션 코리아, p.2, (1994. 1)
- 19) Stegeneyer, Anne, op. cit., p.107
- 20) 허 준, 패션 코리아, p.2, (1994. 1)
- 21) 조규화, 「선진국의 패션 및 패션산업」, p.239, (1985)
- 22) 김일동, 행복을 만드는 예술가 : 이세이 미야케, 월간 멋, p.84, (1986. 3)
- 23) Milbank, Caroline Rennolds, Couture : The Great Fashion Designer, N.Y : Stewart, Tabori & Chang, Inc., p.414, (1985)
- 24) 李垠姬, p.42, (1991)
- 25) 'A Change of Clothes', Times, p.45, (Jan. 27, 1986)
- 26) 조규화, '현대 100년사, 그 발전의 비밀', 월간 멋, p.292, (1990. 5)
- 27) 김 상, 월간 멋, p.245, (1984. 2)
- 28) Steele, Valerie, op. cit., p. 88
- 29) Stegemeyer, Anne, op. cit., p.106
- 30) steele, Valerie, op. cit., p.186
- 31) Koren, Leonard, 일본 패션의 새물결, 월간 멋, p.113, (1984. 11)
- 32) Steele, Valerie, op. cit., p.188
- 33) Carmegy, Vicky, Fashion of Dedade : the 1980S, N.Y : Facts on File, Inc., p.15, (1990)
- 34) Collections : '91 Spring & Summer, Paris-London, GAP Japan, p.72~73, (1990)
- 35) Collection : '92 Spring & Summer, Paris-London, GAP Japan, p.71~82, (1991)
- 36) 이 준, American Postmodern Art : 신표현주의의 포스트 모던적 특징, 호암 갤러리, p. 1, (1993)
- 37) Times, p.70, (Ang. 1, 1983)
- 38) White, Emily, fashion 85, N.Y : ST. Martin's Press, p.115~252,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that the Japanese Fashion has had on the Contemporary Fashion (Focusing on the since 1980s)

By 1980, there are two main flows in the world fashion. One is the traditional Paris fashion by Haute Couture, and the other is the American casual fashion by mass production. However, the appearance of Japanese designers and their new styles on the stage of Paris fashion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change of the world fashion since 1980s.

So,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 to research the process, the background and the power which let the Japanese stand and succeed in the stage of Paris fashion, second to research the Japanese influences which have had on the Fashion World and Fashion Trend from the beginning of 1980s to present (1994).

The results were as follow :

Hanae Mori and Kenzo were the pioneers who let the West know the existence and the level of Japanese fashion. Issey Miyake was the new innovator in the 20th century Fashion

and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New Wave Fashion in 1980s. Rei Kawakubo completed the philosophy of beauty by the imperfection and has led the Postmodernism in the Fashion.

The constant efforts of these Japanese designers have inspired the orientalism and Art-to-Wear, showed up the new construction and material in clothing by layering and draping and stimulated the traditional Paris fashion to become popular, casual and diverse.

The success of Japanese designers and the boom of Japanese fashion were not only the effort of individuality but also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lso, there are the power of economics,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the affection to the culture and tradition on the background.

The New Wave fashion by Japanese designers in the beginning of 1980s have promoted the appearance of Avant-garde fashion in London, the new fashion spirit in Milano, and the various fashion styles of different sections in the West and East.

Finally, it becomes popular in 1990s and leads the fashion spirit in the end of 20th century.